

謹 吊

4월 11日

本會 崔錫采 理事 (元 老 永 眠 言論人)



故 崔錫采 理事

정론과 직필로 言論이끈 巨木 國立公園運動에도 熱意높아

원로 언론인이며 국토통일원 고문등 많은 명예직을 갖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82년 2월부터 네번이나 본회 이사로 선임되어온 崔錫采이사가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恩平구 鷹岩동 2의 21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아산문화재단 이사직도 겸하고 있던 崔이사는 최근 심장병이 재발되어 3월31일 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중앙병원에서 가료받아 회복세에 들어갔으나 4월10일 부터 갑자기 악화됐었다. 崔씨는 '42년 일본中央大 법학부를 졸업,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54년 大邱日報 편집부국장, 55년 大邱每日신문編輯局長과 主筆, 59년 朝鮮日報 논설위원, 60년 京郷신문 편집국장, 61년 朝鮮日報 편집국장~논설위원, 65년 동 主筆, 72년 문화방송·경향신문 會長을 역임했으며 81년 4월부터 大邱每日新聞社 명예회장직을 맡으며 夢郷갈림을 연재. 매서운 筆峰으로 世人의 關心과 注目을 받았었다. 그는 대구매일신문주필 재직시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실을 썼다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는등 두차례의 옥고를 치렀으며 71년 12월 조선일보 주필때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사실을 쓰라는 정권의 압력과 경영진의 요청을 뿌리치고 사표를 낸 일등은 「자기 생각과 다른 글을 써선 안된다」는 그의 철저한 直筆정신을 말해준다. 또 지난해 4월7일 신문의날을 맞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신문은 논조가 확립되지 못한채 社會를 이끌어가 嚮導로서 信念을 갖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가 4.19 직전인 60년 3월17일 재직중이던 朝鮮日報 사설에 쓴 「호헌 구국운동 이외의 다른 方法은 없다」는 격문은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崔씨는 「종합신문은 우리사회의 60~70%를 형성하는 중산층의 사고를 中心에 둘수 밖에 없으며 한국신문의

저항성은 政治權力에 對해서만이 아니라 外勢의 不當한 간섭인 民衆의 그릇된 힘에 對해서도 저항하는 것」이라고 밝힌데서 드러나듯 理念的으로 中道性을 지향했다. 64년 4월 편집인협회 부회장때는 언론윤리위법 반대투쟁을 벌였으며 그해 9월8일 朴正熙대통령과 언론계 대표들과의 儒城회담때는 朴대통령에게 惡法을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한것은 유명하다. 共和黨시절 여·야로 부터 전국구의원 영입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입각제의도 받았으나 결코 外道를 하지 않았다. 6共이후에는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 혼란과 관련, 時勢에 영합치 않고 勇氣있는 發言을 서슴지 않았던 正論·直筆의 귀중한 元老중의 한분이며 巨木이다.

그가 후배언론인들에게 강조한 말은 「차라리 굽어 죽더라도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 무덤에까지 갖고가자」는 것이었다. 그는 국립공원협회 이사회나 총회 때 해외여행을 제외하곤 빠지지 않고 출석하였으며 고령자이면서도 끝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각종 회의에 진지한 태도로 자리를 지켜 대의원이나 이사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다. 운명하기 6일전인 식목일인 4월5일밤 그는 병실에서 찬란한 漢江邊의 야경을 조망하면서 「2~3개월 폭쉬면서 글이나 쓰고싶다」고 말한것이 마지막이 됐다. 장례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으로 엄수했으며 유족으로는 미망인 張志粉여사(66)와 2남1녀가 있다. 장지는 慶北 金陵郡 助馬면 선영하.

- ▲ 기타경력 ≡ 64.4~66.3. 韓國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 △ 66.4~71.1. 제3대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 79.9~80.7. (財)5.16장학회 이사장 △ 77.3~81.3. 亞細亞新聞財團 韓國委員會 會長 △ 61.1~ 特別裁判所裁判官 △ 68.8. 國民교육헌장 심의위원 △ 70.5~80.3. 국토종합계획 심의위원 △ 70.11. 제25次 UN총회 한국 대표자문위원 △ 71.8~80.2. 行政改革委員會 非常任委員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고문 △ 74.10~ 國土統一院 顧問 △ 68.1~ 京榮教

育財團 理事長 △ 赤十字社中央委員 △ 아산文化財團 理事 △ 81.12 ~88.6. 省谷言論文化財團 理事長 △ 74.5~76.4. KIWANIS클럽 韓國協議會 會長 △ 82.2~ 한국국립공원협회 이사 △ 88~90. 韓日 21世紀委員.

▲ 賞勳=△ 51.9. 花郎武功훈장 △ 67.5. 義洋言論文化재단의 독립신문記念 言論賞 제1회 論說部門本賞受賞 △ 71.11. 대한민국 文化藝術賞 言論部門本賞受賞 △ 77.10. 金冠文化勳章

▲ 著書=△ 庶民의 抗章·(續)庶民의 抗章, 日帝下의 名論說集.

編輯者註: 이 글은 88년 4월 30일 그해 봄號로 발간된 國立公園誌 通卷38호 1페이지 「卷頭言」에 실었던 故 崔錫采이사님의 글이다. 이 글을 받은날도 88년 4월 중순의 화사한 봄날이었다. 그분은 지난 4월 11일 세상을 떠나 15일 고향의 幽宅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심장이 약해 山에 오르지 못함을 아쉬워했는데 이 글속에서도 心臟애기가 나와 새삼 再吟味할만 하기에 收錄해 본다.

樂水樂山

젊었을때는 論語雍也篇에 있는 「知者樂水 仁者樂山」을 半知半解했던것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사람은 山을 좋아하느니라」고 書堂의 訓長께서 간단히 풀이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意識속에서 자라났기에 차차 커가면서 「나는 山을 좋아 하나, 물을 좋아 하나」하고 自問自答할때가 더러있었다.

아주 어릴적에는 非山非野라 할만한 故鄉에서 자랐으므로, 山이고 江이고, 이렇다하게 情이 들만한 追憶은 없다.

思春期-性格形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中學時節을 바닷가에서 보낸탓인지 바다물은 어쩐지 感動의 胎盤처럼 지금도 나의 가슴속에 출렁인다.

아빨사! 나는 知者は 될수 있을지언정 仁者は 아니구나 싶어 스스로 失望한 적도 있었다. 그럴수록 외고 집으로 山과는 멀어지고 바다로 向하는 그리움이 더해지기도 했다.

아침저녁으로 출렁이는 바다. 멀리 水平線을 바라보면서 살수 있는 運命을 타고나지 못해서 안타까왔다. 글이 제대로 안쓰여지거나 俗塵에 시름이 걸리지 않을 때는, 無理를 해서라도 벗과 더불어 仁川까지 달려가 하루밤 바닷물소리를 들으면서 지새우곤 했다.

그러면 스프르 속이 풀리는 性格이었으니 생각해보면 「樂水」一邊倒인 셈이다. 물론 「樂水」이긴하되, 「知者」의 발밑에도 못들어가는 半風水의 신세타령이긴 하지만.....

그런데 「知者樂水 仁者樂山」해석을 速斷했다는것을 나에게 깨우쳐준것은 다름아닌 鷺山 李殷相선생이다. 지금은 이미 故人이 됐지만 十여년전의 어느때인가 같이 江陵을 여행한적이 있었다. 아침일찍 海邊을 거닐면서 문득 생각이나, 평소의 疑念을 제기해 본 것이다.

「왜 知者は 樂水만하고, 仁者は 樂山만 하는겁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있어. 知者仁者 다 樂水하고 樂山하는 거야」

「그래도 論語는 딱꿨어지게 갈라놓았던데요」

「그건 漢文文章의 리듬이지. 知者は 仁者고 仁者は 知者거든, 水나 山이나 大自然을 말하는거고, 水는 動의 極致요, 山은 不動의 極致를 의미하는지라 陰과 陽, 動과 不動이란, 大自然의 攝理를 깨닫는 것이 知요, 그 知를 行하는것이 仁이니 仁과 知는 하나지 둘이 아닌것이야.....」

과연 당대의 博學다운 해석이다. 書堂訓長의 기계적인 풀이만 듣고 50여년 끈이 고식하게 「樂水」에 집착했던 마음속의 안개가 싹 가시게 된 것같은 느낌이였다.

하지만 때가 늦었다. 「樂山」도 해보고싶어 登山에 취미를 붙이고자 몇번 덤벼보았지만 그때마다 고된 行脚에 지쳐버리고 아픈다리만 매만지면서 숨이차 험덕거리는 心臟을 달랠수밖에 없어졌으니 그야말로 晚時之嘆이다. 할 수 없이 멀리서 눈으로만 「樂山」하고 「仁」은 마음으로 때워버리기 일쑤다.

곰곰 생각해보면 「樂水」도 그실 마음뿐이었지 게으름뱅이 「樂水樂山」임에는 마찬가지였잖나 싶어 쓴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旅行은 좋아해서 이곳저곳 다녀보긴 하지만 언제나 눈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樂水樂山」이지 그「물」의 動을 추적하거나, 그「不動」의 山에 情을 담고 파고드는 境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未熟을 탄탄것이 한두번이아니다.

하긴 「樂水樂山」을 「요수요산」이라고 읽을줄 모르고 「낙수낙산」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뇌까리는 世代에 비하면 知쪽이 조금은 나을지 모른다고 自慰겸 自虐도 한다.

진짜 「樂水樂山」이 되게 大自然을 아름답리 가꾸는 일과함께 못사람들의 心田을 잘 다듬어나가는 知者의 道 仁者의 道 역시 오늘의 既成世代가 짊어진 課題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어진다.